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0년 8월호

통권 제 204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6~7월 교우소식

### 새 가족

- ♣ 김미선, 210구역, 답십리 4동 ☎ 010-7678-7892
- ♣ 임현수·이영미, 가회동16-14 안국 메트로빌 105  
H.P 011-231-7144(임) 010-3334-2585(이)

### 감 사

- ♣ 유경재 원로목사, 6월6일(주일) 점심식사
- ♣ 고 장경희권사 유족, 6월13일(주일) 점심식사
- ♣ 이효종·김희진 장로, 6월27일(주일) 점심식사
- ♣ 이동호집사·류금주목사, 7월4일(주일) 점심식사
- ♣ 윤상구장로·양은선권사, 7월11일(주일) 점심식사
- ♣ 김윤석·김재진집사, 7월25일(주일) 점심식사

### 별 세

- ♣ 고 장경희권사, 5월 31일 별세 2일 장례.

### 이 사

- ♣ 전크리스틴,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24-3  
신흥연립 303호.
- ♣ 최인관 집사, 계동 140-33 2층 ☎ 744-8109  
010-3194-8109

### 결 혼

- ♣ 서동진군 · 박민아양,  
6월12(토) 오후 1시, 안동교회 본당

### 축 하

- ♣ 피아노 독주회 - 주연수집사,  
6월28일(월) 오후 8시, 금호아트홀(새문안교회 옆)

### 출 국

- ♣ 서우석집사·윤순미권사, 미국 자녀방문.

### 입 원

- ♣ 최명자 권사, 백병원 710호.
- ♣ 오도광집사, 아산병원 동관 13층 133동 5호실.
- ♣ 장세순권사, 보라매병원 동관 5609호.

## 부부교실을 끝마치며

집사 홍동근

결혼 후 10년 이상 된 부부가 이번 부부교실 참가대상이라고 해서 권유를 받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6주간의 일정(토요교실 5회, 1박 2일 수련회 1회)을 마친 후 이 일정이 우리 부부에게는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부부 갈등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응방법(대화 및 행동)을 분석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때로는 부부클리닉의 시간이기도 하였으며 서로의 부부관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우리 부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남녀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유형을 잘 알아야, 목표(사랑의 부부)에 이르는 첫 계단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을 알고 있을까? 부부교실은 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남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해야 했고 성격유형검사(MBTI)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 다음 계단을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Echoing'(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감정을 읽어주며 말하기), 'I Message'(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등이 그것들이며 부부간의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인 것 같다. 세 번째 계단은 꼭 올라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계단인데 그 명칭은 '개별화'이다. 목사님은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떠볼 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사례가 그 예이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감정상태에 끌어들이려고 함과 동시에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 함을 헤아리시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응답하심으로써 평화를 실현하신 것이다. 그럼 개별화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연결된 부부는 어떨까? 상대방을 조종하지 않고 과다하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며, 함께 하면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자유로운 감정상태를 가지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자발적인 사랑을 받기에, 행복이 늘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일정은 수련회였다. 장소는 서천의 백종관 장로님(이선옥 집사님)택이었다. 공기 좋고 안락한 곳이었다. 여기서 부부교실 참여 가정들은 더욱 관계가 가까워짐을 느꼈다. 저녁에 바베큐 파티 후 진행된 애찬식을

통해 부부간 사랑의 다짐을 언약하였다. 심금의 메아리 시간이었다. 다음날 서천해수욕장에서 가족들과 조개를 캐었고 오후에는 상경하면서 부여연꽃축제장을 방문하였다. 연꽃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이로써 부부교실의 모든 일정이 훌륭하게 마무리되었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기쁨 아이 찰칵

전도사 을지자르갈

아! 무더운 여름이 왔다 기다리던 성경학교!  
친구와 손잡고 교회로!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는, 풍성한 찬치!  
예수님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는 사랑의 찬치!  
즐거운 게임 흥겨운 율동 신나는 찬치!  
우리 동네 친구 데려오는 전도의 찬치!

금년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요8:29, 시37:4)입니다. 이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는 여름성경학교는 “기쁨 아이 찰칵”이라는 주제 안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주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린이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기쁨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게 사랑스럽게 담기기를 기도하며 사진 찍은 소리 “찰칵”을 사용하여 “기쁨 아이 찰칵”으로 표현했습니다. 위 주제로 열리는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18과 7월25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기도와 수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 영·유아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한 것임을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영·유아가 어린이들의 신앙적 기초를 형성하도록 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 느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마음

에서 입술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동안 영·유아부 어린이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함께 놀고, 기도하고, 서로서로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에 기쁨 아이, 엄마, 아빠 모두를 초대합니다.

## 하나님의 기쁨아이 찰칵!

교사 김현진

무더운 여름이 다가 오고 있다. 여름은 무덥지만 방학도 있고, 휴가도 있어 한편으로는 들뜨기 쉬운 계절이다. 우리 유치부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2010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어린이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아이 찰칵!'을 표어로 삼았다. 그 첫 단계로 6월엔 여름성경학교 새 찬양인 「기쁨아이 찰칵!」, 「기쁨아이 모여라」, 「살롬송」을 배워보았다. 율동도 더욱 활기차고, 가사에도 흥내 내는 말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유치부 어린이들이 더 신나게 즐기며 찬양할 수 있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신앙 표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찬양을 통해 또한 기쁨아이가 되기로 다짐까지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치부 어린이들을 보며 교사인 나도 하나님의 마음 사진기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찍혀 있을지를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미운 모습, 욕심내는 모습보다는 웃는 모습, 멋진 모습으로 찍히길 소망하며 하나님도 하하하, 선생님들도 하하하, 어린이들도 하하하 웃는 상상을 해본다.

## 서울 숲 소풍

전도사 최진오

아나바다 바자회가 열렸던 5월 30일. 중고등부는 '서울숲'으로 소풍을 떠났습니다. 우천으로 한번 연기가 되었던 터라, 5월 30일도 비가 온다는 소식에 이번에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도 선선하고 피부도 많이 타지 않을 날씨라 소풍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교회에서만 부대끼다 밖에 나가서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전거를 함께 타니 심리적인 거리도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이름도 몰랐던 중고등부 친구들 간에도 자연스레 보이지 않았던 허물들

이 많이 없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때 2박 3일간 함께 잠을 자다보면 더 친근해지겠죠? 학원, 과외 등이 있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모든 성도님들 꼭꼭 수련회 보내주세요. 아셨죠?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16강에서 경기를 지고 나니 월드컵이 거의 끝난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있을 때면 중고등부 총무 정인철 선생님이 아이들이 마음껏 응원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실에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을 설치하여 항상 수고해 주셨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정인철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중고등부는 수련회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번에 수련회 장소를 광고 시간에 보여주었는데, 고3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좋은 장소였습니다. 전도사보다 신앙이 좋은 우리 고3 친구들뿐 만 아니라 지금껏 보지 못했던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분명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 사진으로 보는 안동교회 소식

### ▶ 나라를 위한 기도회



### ▶ 소허당 일일 특강



### ▶ 한메 남선교회 소허당특강



### ▶ 제3기 부부교실



### ▶ 안동어린이집



## 안동의 여름을 소개 합니다.

교사 양운정

여름의 나뭇잎의 색이 더욱 초록을 발하듯 안동의 어린이들도 더욱 더 생각이 깊어지고 자라는 여름입니다. 우리 안동 친구들은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있을까요? 작은 폴장에 첨병 첨병 까르르 웃은 소리가 햇살과 함께 울려 퍼집니다. 알록달록 수영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물놀이는 너무나 즐거워요. 친구들과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보면 어느새 여름은 저만큼 달아나 있답니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다문화 선생님과 즐거운 요리도 만들고 있답니다.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에 '콩고' 선생님과 함께 만든 색다른 다른 나라의 음식은 맛있기도 하고 즐거운 요리 시간 덕분에 기운이 펄펄 납니다. 고운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로 예쁜 목소리를 뽐내는 발표회가 있었습니 다. 안동의 어린이들이 직접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고르고 매일 연습도하며 '동요 발표회'를 기다렸어요. 이 날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뽐 낼 수 있었던 날이에요. 예쁜 가방 선물도 받을 수 있었어요.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한국산(産)' 신흥종교 일본 교회 혼란 가중

'한국산(産)'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종교집단이 일본 사회와 교회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일본기독교단(UCCJ)이 공동 주관한 '한·일 연합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17~18일 일본 후쿠오카 모처에서 열렸다. 통일교(문선명 집단) 피해자들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양 교단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의 특강과 피해사례 보고, 대응책과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세미나에서는 통일교 피해 방지책 마련이 주로 논의됐지만, 올해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신흥 종교집단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일본 참석자들은 신천지, 단월드, 다락방, 하나님의교회, 통일교 출신인 A씨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 설립한 교계 언론사와 그 유관단체 등에 대해 한국 참석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쏟아내며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산' 신흥 종교집단이 기독교인을 집중 포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세미나가 열린 후쿠오카에 신천지 무리가 기독교인으로 위장해 암약한다는 정보 보고가 한국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한국 내 지역개발 사업의 막대한 자금 상당부분이 일본 신자의 헌금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자금은 대부분 '영감상법(靈感商法)'이라는 이름의 판매행위로 얻어진다고 일본측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코이테 노조무 목사(일본기독교단 선교위원장)는 "통일교는 종교성을 감추고 운세감정이나 앙케이트 조사 등을 구실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물건을 강매하고 있다"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탕감하고 이를 공양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

우면서 전 재산을 몰수하는 괴롭치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통일교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돕고 있는 오가슈이치 변호사는 2009년 일본 피해사례를 수치화해 공개했다. 그는 "통일교는 2009년에 일본 내에서 영감상법을 통해 도자기와 불상, 미술품, 보석류 등을 판매(건수 1천1백13건)했으며, 피해금액은 약 37억엔에 달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탁지일교수(부산장신대·총회 이대위 전문위원)는 "통일교의 부정적인 면을 계속해서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탁 교수는 "통일교는 최근 후계구도를 구축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을 하지만 실상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교회는 통일교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야 한다. 통일교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피해사례 보고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장가를 못가는 한국 남성들이 통일교에 위장 입교 후 합동결혼식을 한다는 색다른 주장이 나왔다. 이 경우 부부 간에 종교신념이 엇갈려 결국 가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것. 일본의 히라타 변호사는 "일본의 통일교 여성들에게 한국은 성지이며, 한국에서의 합동결혼식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종교신념이 없는 한국 남성과 통일교에 세뇌된 일본 여성이 만나 불행해진 경우가 많다. 이는 위자료 소송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유영돈 목사(구미영은교회)는 "의견 교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양 교단이 긴밀히 협조하며 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며 "실무를 맡을 창구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본에서도 이 제안에 동조 입장을 표명하면서 양 교단 이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미나 후에는 통일교 주도로 건설이 추진됐던 규슈 사가현 지역의 한·일 해저터널 현장을 방문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국 참석자들은 터널 공사가 재개되면 적극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는 공동 입장을 정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본교단은 총회와 노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임원 25명을 보냈다. 일본에서는 일본기독교단 선교담당 관계자와 통일교문제전

국연락회의 교구별 대표, 통일교 피해자와 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 통일교 피해 한·일 법적 공동 대응

통일교 피해사례를 두고 한국과 일본 기독교계는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기독교단은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을 통해 일본 여성 7천여 명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주지가 확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본교단의 협조를 얻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법적 대응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통일교 문제와 관련한 전담 변호사들이 이미 구성돼 있다. 한국에서는 이번 공동 세미나에 참석한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소명·기독교 변호사회 사무국장)가 이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운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의 피해사례나 범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며 "하나의 사례를 일본측에서 주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본교단과 일본기독교단의 관계자들은 변호인단의 공동 대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 최삼경목사(빛과소금교회)는 "교회와 피해자,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이단·사이비 대처에 나선다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 한·일 연합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는..

'한·일 연합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는 2004년부터 시작됐다. 일본 내에서 통일교로 인한 기독교인과 일반인의 피해가 속출하자 일본기독교단의 요청으로 본교단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이 동경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세미나를 통해 통일교의 동향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법률자문을 도와주기 위한 변호인단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통일교 외에 다른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 다락방, 통일교 아류 집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창가학회 등 근래 한국에서 세를 넓히는 신흥 종교집단의 대처법 등을 알려왔다.

## '용서, 화해, 사랑'의 삶 결단

손양원목사 순교 60주년을 기념해 총회 역사위원회(위원장:이만규)는 지난 21~22일 여수은파교회(고만호목사 시무)에서 '손양원목사의 용서 화해 사랑'을 주제로 제3회 한국교회사 포럼을 개최했다. 순천 순천남 순서 여수 등 4개 지역 노회의 협력으로 여수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전국 노회 역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타교단 목회자, 신학생 및 성도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일간 기림의 날, 학술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열린 기념예배에서 '피의 표적' 제하로 설교한 증경총회장 방지일목사는 "손양원목사에게는 언제나 선혈의 표적이 생생하게 흐르고 있었다"며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선혈이 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중의 참여도를 높이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예배에는 '안재선을 용서하는 손양원목사'의 그림 퍼즐을 한 조각씩 완성하며 참석자들이 용서 화해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드러진 헌금은 현재 여수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손양원목사 종교 테마공원 내 기념조형물 제작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이만규목사(신양교회)는 "손양원목사가 보인 용서와 화해, 사랑의 영성은 계층과 이념, 인종간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 우리 한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성"이라며 "손양원목사의 영성을 통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한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신대 이효경학생은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손양원목사님에 대해 배웠는데 이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나에게도 그런 열정과 신앙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됐다"고 참석소감을 전했다.

또한 역사위는 둘째날 학술세미나에 이어 성산교회(이광일목사 시무)에서 손양원목사가 시무했던 애양원교회 예배당(현 성산교회)의 한국기독교 사적 제6호 지정식을 가졌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차종순총장(호남신대) 이광일목사 최상도목사(에던버

러대 순교신학 전공) 김기현목사(마산문창교회 원로) 등이 각각 △순양원목사의 삶 △애양원교회 이야기 △순양원목사의 '용서 화해 사랑'의 삶과 죽음 △목회자의 본(本), 순양원목사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 어렵게 쌓아 온 남북 화해·평화 유지돼야

한국전쟁 60년과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기도회가 지난 17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진병호) 주최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2백여 명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냉전 대립의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우려하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이 지속될 것을 기도했다.

특히 이날 고백의 기도를 통해 참석자들은 "우리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화해와 협력의 결실을 저버리고, 또 다시 불신과 대립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잊고 분단 현실을 당연시하는 풍조에 길들여져, 전쟁 이데올로기와 제국주의 침략적 세계질서 재편성에 순응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위해 살지 못하고 맘몬이 우상으로 득세하는 세상질서에 따른 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당연히 여기고 지배와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를 용인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을 기도했다.

또한 기도회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과제와 한국교회 실천'을 선언하며, △남북은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것 △한반도는 핵전쟁 위험이 없는 평화지대가 될 것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 △남한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기본적 필요와 생존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북측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것 △한국교회는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믿고 실천 할 것 △한국교회는 남북 간의 적대의식과 대결의식을 회개하고 극복해 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나혜집목사(열림교회)의 인도에 따라 진행, 권오성총무의 인사말에 이어 정종훈교수(연세대), 김신애목사(고난함께 사무국장), 김현호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가 '한국전쟁 60년-민족의 화해를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 선언-평화를 위한 기도', '남북의 대결 현실-공존 공생을 위한 기도' 등을 제목으로 기도했으며, 전병호목사가 '정의로운 평화'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서 김상근목사(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자'를 제목으로 증언 순서를 가진 후 이명남목사(당진교회)의 과송사와 박경조신부(대한성공회)의 축도가 이어졌다.

## "우리는 한 교단"...전국 신학생 '한 자리'

총회산하 7개 신학대학원 신입생 통합수련회가 지난 21~23일 소망수양관에서 열려 한 교단 내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목회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단 제94회 총회 주제인 '하나님을 기쁘시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총회 신학교육부(부장:장창만)가 주최하고, 교단 총회 결의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 통합 기수 104기 전국7개신학대학원연합회가 주관했다.

첫날 총회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여는 예배에서는 이형규장로(신학교육부 회계, 효성교회)가 기도한데 이어 장창만목사(록원교회)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럽교회는 이미 1990년대부터 위기에 봉착했으며, 기독교 국가로 분리됐던 아프리카의 국가들에도 이슬람이 깊숙이 파고들면서 기독교 선교지를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 목사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고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한다"면서 목사 후보생으로써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죄 덩어리인 나 자신부터 영화롭게 해야 하며 △내게 주신을 일을 이루어야 하고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배에 이어서 진행된 총회와 함께 시간에는 사무총장 조성기목사가 참석해 총회의 현황과 비전을 설명함으로써 한 교단 내에 소속한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저녁에 선택강좌 형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류영모목사(한소망교회), 최삼경목사(빛과소금교회), 최충원목사(신학교육부서기, 평택성민교회)가 강사로 참여 '소명론', '이단', '목회현장' 등을 제목으로 강의했다.

또한 둘째 날 진행된 특강 시간에는 이순창목사(총회 서기, 연세교회)가 강사로 나서 '개혁교회 전통과 본교단'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개혁교회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역사를 정리한 후 "우리 교단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여 교회를 많이 세워 성장시키고, 사회 문화 의로 교육 분야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하고, "일제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활력을 보였고 수적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련회 새벽예배와 저녁집회는 정장복목사(한일장신대 총장) 문성모목사(서울장신대 총장) 김지철목사(소망교회)가 설교했으며, 파송예배는 윤철호목사(장신대 신대원장)의 인도에 따라 김세광목사(서울장신대 신대원장)의 기도, 손달익목사(서문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또 최학진교수(뉴욕 나약대학교)가 간증했다.

한편 이번 수련회 기간에는 통합 105기 출범식도 함께 열렸다. 출범식에서는 회장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김성남씨가 취임했다.

## 한기총 개혁안 끝내 부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조직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마련했던 정관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지난 2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노렸던 한기총은 전통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으나 재석 1백65명 중 찬성 76, 반대 88, 무효 1표로 2/3 찬성을 얻는데 실패했다. 정관개정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

미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약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됐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상위법인 정관이 부결됨에 따라 이미 세칙 등이 실행위에서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모법과 상이한 부분들은 결국 모법을 기준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경우 한기총 지도부가 노렸던 개혁안은 모두 원점으로 회귀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총회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 난타전이 이어졌다. 특히 한기총 명예회장들이 이견을 쏟아내서 혼란이 가중됐다. 한기총 명예회장인 이용규목사는 "지난 총회 때 변화발전위원회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올린 것 자체가 변칙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길자연목사도 "변발위가 좋은 안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는 일단 미루고 재논의 하는 것이 연합의 원칙"이라고 지적해 사실상 안전처리를 연기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다. 난상토론 끝에 한기총은 표결을하기로 했지만 '거수방식'과 '비밀투표방식'을 두고 또 다시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취임 이후 줄곧 개혁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이광선대표회장은 다음 날인 25일 열린 한기총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총대들의 선택을 지지한다"면서도, "에베레스트에 등정하려는 사람이 실패한 뒤에도 재도전 하듯이 한기총의 개혁은 누가 대표회장이 되어서도 반드시 재도전해야 할 것"이라며, 정관개정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밝혔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북촌우물가

2010년 8월호 · 통권 제204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황 영 태

편집인: 안 중 혁

안 재 훈

발행일: 2010년 8월 1일